

최근의 실업률 하락 및 고용률 정체 요인 분석

연구위원 유경준

1. 문제의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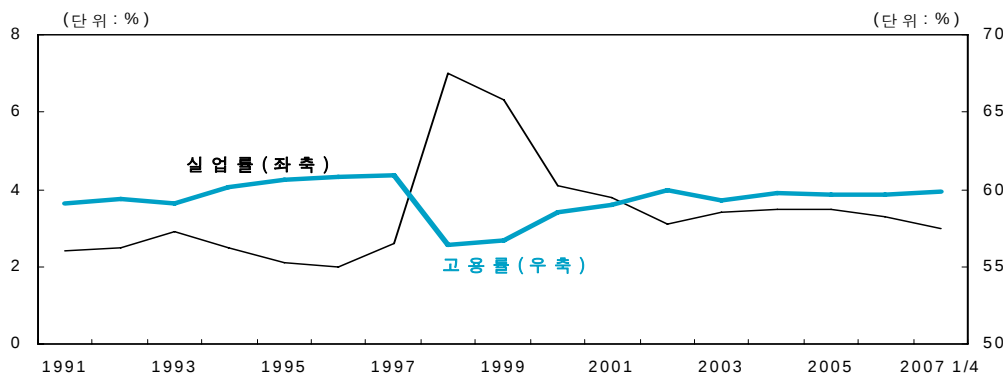
■ 최근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은 정체되고 있음.

● 2007년 1/4분기 실업률은 3.6%(계절조정 3.2%)로 전년 동기의 3.9%(계절조정 3.6%)에 비하여 0.3%p 하락

— 실업률의 이러한 추이는 올해의 성장률이 지난해에 비하여 낮게 전망됨에 따라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반대의 모습

● 반면 1/4분기 고용률은 전년 동기(58.5%)와 유사한 58.6%를 기록

고용률과 실업률의 추이



주: 2007년 1/4분기는 계절조정된 것임.
실업률은 시계열상 일관성 유지를 위해 '구직기간 1주'를 기준으로 하였음.

■ 한편,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고용률의 정체는 2003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현상임.

● 1997년에 60.9%를 기록했던 고용률은 외환위기로 인해 1998년에 56.4%까지 하락하였으며, 2002년에 60%로 상승한 이후 최근까지 정체되면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본고는 이와 같이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정체되는 현상을 연령별 고용률의 변화 및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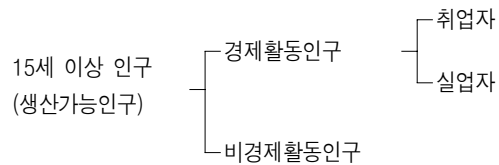
2. 고용률과 실업률의 관계 및 고용률의 변화요인 분석

가. 고용률과 실업률의 관계

- 고용률과 실업률의 정의상, 고용률이 정체되더라도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함에 따라 실업률이 낮아지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음.
-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의 비율’(취업자/생산가능인구)로 정의되며,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의 비율’(실업자/경제활동인구)로 정의됨.

$$\begin{aligned}
 \text{고용률} &= \text{취업자} / \text{생산가능인구} \\
 &= (\text{취업자} / \text{경제활동인구}) \times (\text{경제활동인구} / \text{생산가능인구}) \\
 &= (1 - \text{실업률}) \times \text{경제활동참가율}
 \end{aligned}$$

생산가능인구의 구성



- 따라서, 생산가능인구와 취업자 수가 변하지 않아 고용률에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부 실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실업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나. 연령층별 고용률 기여도의 변화추이

- 고용률은 연령별 고용률의 가중평균으로 나타낼 수 있음.

$$E = \frac{\sum_{i=1}^n (i \text{ 연령층 취업자수})}{\text{전체 생산가능인구}} = \sum_{i=1}^n \left[\left(\frac{i \text{ 연령층 취업자수}}{i \text{ 연령층 생산가능인구}} \right) \times \left(\frac{i \text{ 연령층 생산가능인구}}{\text{전체 생산가능인구}} \right) \right]$$

- 즉,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을 E ,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을 U ,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을 P , 생산가능인구의 연령층별 비중(해당 연령층에 속한 생산가능인구의 전체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비율)을 S 로 정의하면,

$$E = \frac{\text{취업자수}}{\text{생산가능인구}} = \sum_{i=1}^n E_i S_i = \sum_{i=1}^n [(1 - U_i) P_i] S_i .$$

- 연령계층을 청년층(15~24세), 중고령층(25~64세), 노령층(65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인구가중치(S_i)를 연령층별 고용률(E_i)에 곱한 $S_i E_i$ 를 연령층별 ‘고용률 기여도’로 정의
- 이와 같이 고용률을 연령층별로 분해해 본 결과, 2002년 이후의 고용률 정체는 청년층의 고용률 기여도 감소에 주로 기인함을 알 수 있음.
- 2002년 이후 중고령층과 노령층의 고용률 기여도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고용률 기여도가 감소함에 따라 전체 고용률이 정체

연령별 고용률 기여도의 추이

(단위: %)

	연령별 고용률 기여도, $S_i E_i$			전체 고용률
	15-24세, $S_1 E_1$	25-60세, $S_2 E_2$	65세 이상, $S_3 E_3$	
2002	5.7(9.5)	51.2(85.3)	3.1(5.2)	60.0(100)
2003	5.4(9.1)	50.9(85.8)	3.1(5.2)	59.3(100)
2004	5.3(8.8)	51.3(85.7)	3.3(5.5)	59.8(100)
2005	4.8(8.0)	51.4(86.1)	3.5(5.9)	59.7(100)
2006	4.2(7.0)	51.8(86.8)	3.7(6.2)	59.7(100)

주: 실업률은 시계열상 일관성 유지를 위해 '구직기간 1주'를 기준으로 하였음.

()의 백분율은 연령별 고용률 기여율($E_i S_i / E$)을 의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에서 계산.

- 연령층별 고용률 기여도의 변화를 보다 장기적으로 살펴보면 1991년 이후 고용률 기여도 변화의 대부분은 청년층에서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1998년 외환위기 당시의 전체 고용률 감소는 노령층을 제외한 청년층과 중고령층 고용률 기여도 감소에 기인
- 외환위기 이후 2002년까지는 전 연령층에서 고용률 기여도가 모두 증가

- 2002년 이후에는 청년층 고용률 기여도의 감소폭이 다른 연령층 고용률 기여도의 증가폭을 상쇄하면서 전체 고용률의 정체가 나타나고 있음.

기간별/연령층별 고용률 기여도 증감

(단위: %p)

	15~24세	25~64세	65세 이상	전체
1991~1994	-0.79	1.50	0.21	0.92
1994~1998	-2.29	-1.62	0.25	-3.66
1998~2002	0.10	2.70	0.77	3.57
2002~2006	-1.48	0.65	0.58	-0.2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에서 계산.

- 한편, 최근의 청년층 고용률 기여도 하락은 청년층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감소와 더불어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하락한 데에 주로 기인

-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비중(S_1)의 하락폭이 크지 않음을 감안할 때, 청년층의 고용률(E_1)의 하락이 고용률 기여도 하락을 주도
- 특히 청년층의 취업률($1-U_1$)은 거의 변화가 없는 가운데,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P_1)은 2006년에 30%로 2002년의 34.2%에 비해 크게 하락하여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고용률 기여도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

고용률의 요인 분해

(단위: %)

	취업률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생산가능인구 비중			고용률
	15-24세 ($1-U_1$)	25-64세 ($1-U_2$)	65세 이상 ($1-U_3$)	15-24세 (P_1)	25-64세 (P_2)	65세 이상 (P_3)	15-24세 (S_1)	25-64세 (S_2)	65세 이상 (S_3)	
1991	92.73	98.43	99.83	37.27	72.86	26.29	25.04	67.77	7.19	59.14
1994	92.72	98.22	99.86	37.20	73.38	27.33	22.80	69.51	7.70	60.06
1997	92.42	97.99	99.42	34.83	74.69	29.67	21.09	70.51	8.40	60.87
1998	84.19	93.93	98.46	32.23	72.93	27.52	20.54	70.77	8.69	56.41
2002	91.93	97.33	99.48	34.23	73.29	30.70	18.03	71.74	10.23	59.98
2003	90.37	97.14	99.60	34.08	72.84	28.74	17.45	71.88	10.68	59.29
2004	90.02	97.06	99.37	34.66	73.30	29.82	16.83	72.05	11.12	59.81
2005	90.34	96.90	99.36	33.06	73.44	30.01	15.96	72.21	11.83	59.68
2006	90.59	97.08	99.36	30.02	73.79	30.50	15.43	72.35	12.22	5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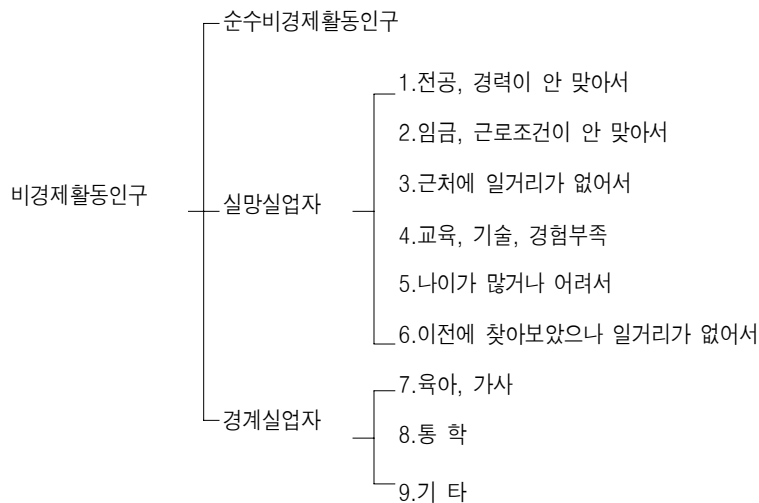
3. 최근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변동 요인

■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 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를 취업의사의 유무와 그 정도에 따라 실망실업자, 경계실업자 및 순수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 취업의사는 있으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를 구직활동포기 사유에 따라 ‘실망실업자(discouraged workers)’와 ‘경계실업자(marginally attached workers)’로 분류

-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나 취업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실망실업자와 경계실업자의 합을 잠재실업자로 표현하고, 실업자와 잠재실업자의 합을 유휴인력으로 구분
- 순수비경제활동인구는 구직활동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취업의사도 없는 인구를 의미

비경제활동인구의 분류



■ 이러한 분류를 통해 볼 때, 최근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은 순수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에 주로 기인

● 청년층의 비경제활동인구는 2000년 468만명에서 2005년 409만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06년에는 419만명으로 증가

- 2006년 이후의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취업을 포기한 순수비경제활동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에 기인
 - －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가 있는 잠재실업자(실망실업자+경계실업자) 수는 2002~2005년 중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06년 이후 크게 감소
- 이와 같은 결과는 청년층을 15~29세로 분류하더라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남.
 - － 우리나라 남자는 군복무의 의무가 있으므로 노동력을 연령별로 구분할 때 청년층을 15~24세 대신 15~29세로 구분하기도 함.

경제활동인구와 유휴인력의 구성(15~24세)

(단위: 천명, %)

	15~24세 인구	취업자	실업자(A)	비경제활동인구				잠재 실업자 (B+C)	유휴인력 (A+B+C)
				실망 실업자(B)	경계 실업자(C)	순수 비경제활동인구	소 계		
2000	6,960.2	2,048.9	231.8	49.2	13.7	4,616.6	4,679.6	63.0	294.7
	(100.0)	(29.4)	(3.3)	(0.7)	(0.2)	(66.3)	(67.2)	[21.4]	(4.2)
2001	6,802.2	2,047.1	218.8	36.8	9.6	4,489.9	4,536.4	46.4	265.2
	(100.0)	(30.1)	(3.2)	(0.5)	(0.1)	(66.0)	(66.7)	[17.5]	(3.9)
2002	6,662.7	2,096.6	184.0	20.2	7.5	4,354.4	4,382.1	27.7	211.7
	(100.0)	(31.5)	(2.8)	(0.3)	(0.1)	(65.4)	(65.8)	[13.1]	(3.2)
2003	6,514.1	2,006.4	213.7	33.0	6.3	4,254.8	4,294.1	39.3	253.0
	(100.0)	(30.8)	(3.3)	(0.5)	(0.1)	(65.3)	(65.9)	[15.5]	(3.9)
2004	6,348.0	1,980.5	219.6	32.1	8.2	4,107.6	4,147.9	40.3	259.9
	(100.0)	(31.2)	(3.5)	(0.5)	(0.1)	(64.7)	(65.3)	[15.5]	(4.1)
2005	6,113.1	1,826.0	195.2	35.8	2.8	4,053.3	4,091.9	38.6	233.8
	(100.0)	(29.9)	(3.2)	(0.6)	(0.0)	(66.3)	(66.9)	[16.5]	(3.8)
2006	5,982.8	1,626.9	169.1	28.5	4.4	4,154.0	4,186.9	32.9	201.9
	(100.0)	(27.2)	(2.8)	(0.5)	(0.1)	(69.4)	(70.0)	[16.3]	(3.4)

주: () 안은 15~24세 이상 인구 대비 구성비, [] 안은 유휴인력 대비 구성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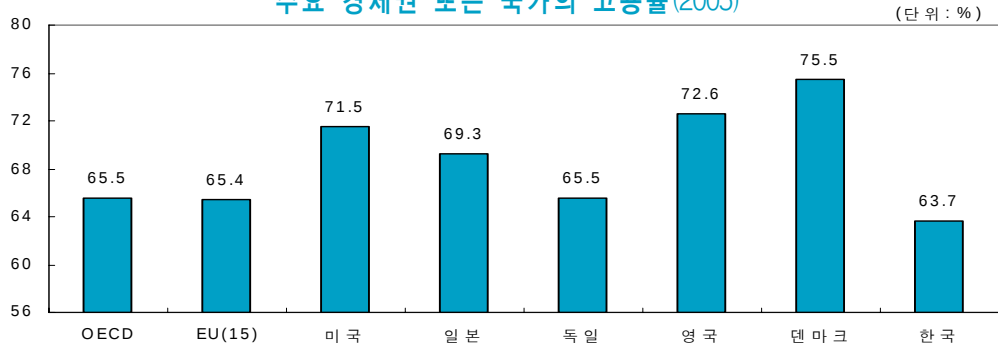
실업률은 시계열상 일관성 유지를 위해 '구직기간 1주'를 기준으로 하였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원자료에서 계산.

고용률의 국제비교

- 국제비교를 위하여 생산가능인구를 15~64세로 정의하여 국가(또는 경제권)별 고용률을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선진국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OECD나 EU의 평균보다 낮으며, 미국과 영국보다는 6%p 이상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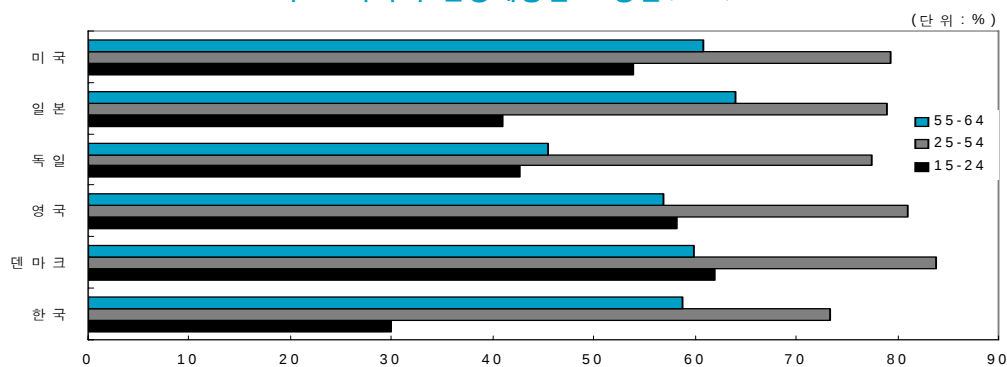
주요 경제권 또는 국가의 고용률(2005)



주: 15~64세 인구 대상 통계임(영국은 16~64세 기준임).
 자료: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6에서 작성.

- 한편 고용률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률은 여타 국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음.
- 또한 중년층의 고용률도 여성의 낮은 고용률로 인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낮으며, 55세 이후는 다른 나라와 비슷한 고용률을 보이고 있음.

주요 국가의 연령계층별 고용률(2005)



주: 15~24세 고용률에서 영국은 16~24세 기준임.
 자료: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6에서 작성.

4. 고령화가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

■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인구구조 고령화도 경제전체의 고용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노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여타 연령계층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이 일반적임.

－ 2006년 우리나라 노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30.5% 및 30.3%로서, 전체 경제활동참가율(61.9%)과 고용률(59.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 따라서 인구 대비 노령층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우, 경제 전반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은 낮아지게 됨.

－ 물론 노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타 연령층에 비해서는 향후에도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임.

■ 실제로 전체 고용률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반면, 노령층을 제외한 고용률은 2005년 이후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63.7%)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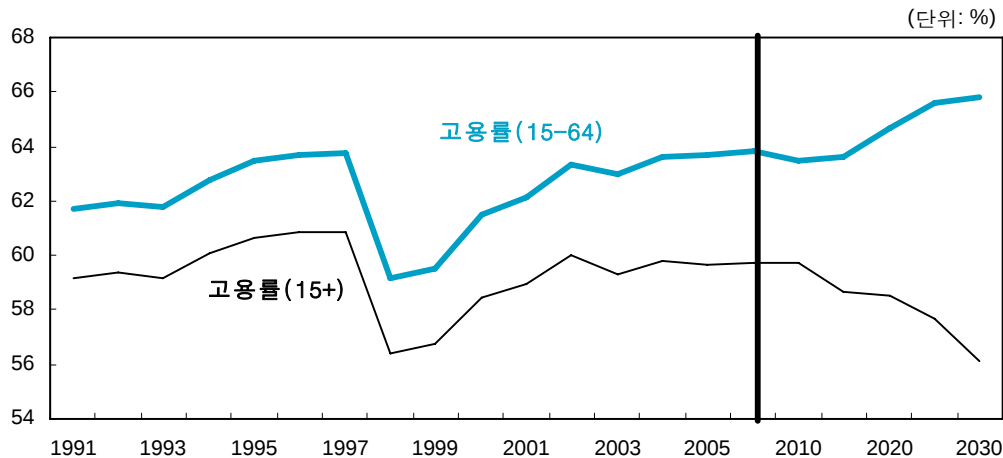
● 노령층을 제외한 고용률은 전체 고용률에 비해 3%p 내외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격차는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 전체 고용률과 노령층을 제외한 고용률의 격차는 향후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더욱 크게 확대될 전망

● 특히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2010년 이후에는 이 격차가 급격히 확대되어, 노령층을 제외한 고용률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전체 고용률은 오히려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임.

－ 고령화가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기 위하여 연령별 취업률($1 - U_i$)과 경제활동참가율(P_i)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인구연령구성(S_i)의 변화만을 반영하여 미래의 고용률을 추정

고용률 추이 및 전망



■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고용률을 평가함에 있어 인구구조의 변화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할 것임을 시사

● 특히,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를 15세 이상 인구로 정의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고용률 발표는 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생산가능인구 및 고용률을 15~64세 인구 기준으로 발표하는 선진국도 다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

● 즉, 우리나라의 기준은 다수 선진국에 비해 고용률을 과소추정하는 측면이 있으며,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그와 같은 가능성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임.

－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된 일본의 경우, 2005년 15세 이상 인구 기준의 고용률은 57.3% 였으나 15~64세 기준의 고용률은 이를 12%p나 상회하는 69.3%로 나타나고 있음.

5. 요약 및 시사점

■ 2005년 이후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고용률이 정체되는 현상은 청년층의 취업의사 포기 등에 의한 순수비경제활동인구 증가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청년층 경제활동의 부진은 최근 높지 않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을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고용정책의 목표로서 실업률보다는 고용률이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

■ 따라서 향후 고용정책은,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 및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

● 청년층의 고용부진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노동수요(기업의 경력직 선호)와 노동공급(고학력화에 따른 청년층의 높은 기대수준) 간의 큰 괴리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현상은 청년층에게 추가적인 교육과정 이수를 유도하거나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위한 취업준비기간을 장기화하여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세 이상 인구 중 대졸 이상 비율은 2000년 22.4%에서 2005년 3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2007년).

－ 아울러 청년층(15~29세)이 졸업 또는 중퇴 후 첫 취업할 때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기간도 2005년 10개월에서 2006년 12개월로 1년 사이에 2개월(1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통계청 「2007 청소년 통계」, 2007년 5월).

● 따라서 청년층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교육과 노동시장성고가 보다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즉, 노동수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존의 청년층 실업자 및 취업대기자에게 적절한 직업능력개발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보다 장기적으로는, 고용률을 평가함에 있어 인구구조의 변화를 함께 고려할 필요

● 고령화의 진전은 점차 고용률을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